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플랫폼

부평캠프마켓예술제조직위원회



수신자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참조) 부평문화재단 본부장

제 목 2022 부평캠프마켓 문화포럼개최

「2022부평캠프마켓예술제조직위원회」에서는 2022 기억하는 문화도시 부평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플랫폼으로 캠프마켓 지역을 역사·예술·평화·생태가 어우러지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포럼을 개최하려고 함.

1. 사 업 명 : 2022부평캠프마켓문화포럼
- 기억하는 문화도시 부평 -
2. 일 시 : 2022. 08. 23.(화요일) 16:00
3. 장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평아트센터 호박홀2층
4. 내 용 : 2022 부평캠프마켓 활용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포럼
5. 예산계획 : 신청금액 5,610,000원

붙임 : 2022 부평캠프마켓 문화포럼 계획 1부 끝.

부평캠프마켓예술제조직위원회



담당자 김인철

사무총장 조성돈

위원장 신종택

부평캠프마켓예술제조직위원회 예술제조직위-0001(2022.07.18)

우 2140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85-1 / 홈페이지

전화번호 (010-5328-9376)

이메일주소 sindulim44 @hanmail.net

【붙임】

2022 부평캠프마켓 문화포럼 - 기 억 하 는 문 화 도 시 부 평 -

□ 개요

- 행사명 : 2022 부평캠프마켓 문화포럼 - 기억하는 문화도시 부평 -
- 일 시 : 2022. 8. 23(화) 16:00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호박홀(2층)
- 내 용 : 부평캠프마켓 활용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포럼

□ 목적

2022 기억하는 문화도시 부평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플랫폼으로 부평캠프마켓 지역을 역사 · 예술 · 평화 · 생태가 어우러지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 전문가를 모시고 문화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인천 부평구가 부평미군기지 부평캠프마켓 활용방안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21년 하반기 부평미군기지 반환활용을 지난 2015년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음' 이에 구와 구민의 집약된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캠프마켓 B구역 개방구간 향후계획 및 토양 오염 정화 작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뤄어짐.
- 또한 캠프마켓 내 역사박물관 및 문화교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본구상과 운영관리계획 검토와 지난 80여년간 일본 조병창과 미군기지로 단절됐던 부평 캠프마켓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캠프마켓 활용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음.

□ 세부계획

1. 사 업 명 : 2022 부평캠프마켓 문화포럼
2. 일 시 : 2022. 08. 23(화) 16:00
3. 장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평아트센터 호박홀 2층
4. 내 용 : 2022 부평캠프마켓 활용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포럼

2022 부평캠프마켓 문화포럼 발제자 명단

구분	성명	직책	비고
1	신종택	조직위 대표	포럼좌장
2	조성돈	조직위 사무총장	사회 진행
3	박병상	도시생태환경 박사	환경
4	김창수	문학박사	문학
5	이경모	미술평론박사	예술
6	김현석	사학박사	역사
7	이희환	문학박사	평화

□ 타임테이블

구분	시 간	내 용	발제, 토론	비고
1	16:00~16:02	포럼개최 및 포럼개최 설명	사회자	
2	16:02~16:05	조직위원장 말씀	신종택	
3	16:05~17:05	1부 포럼(발제 및 토론) - 환경, 문학, 역사 ※ 발제 10분/ 토론 10분	좌장(신종택) 환경(박병상) 문학(김창수) 역사(김현석)	
4	17:05~17:15	휴식		
5	17:15~17:55	2부 포럼(발제 및 토론) - 예술, 평화 ※ 발제 10분/ 토론 10분	좌장(신종택) 예술(이경모) 평화(이희환)	
6	17:55~18:00	포럼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 예산계획

총사업비	5,610,000원	지원신청금	5,610,000원	자부담	
------	------------	-------	------------	-----	--

	예산항목	지원신청 산출근거	예산구성		예산액(원)
			지원신청(원)	자부담	
지 출 예 산	발제 사례비(원고포함)	400,000원×5명	2,000,000원		2,000,000원
	토론 사례비(원고포함)	300,000원×5명	1,500,000원		1,500,000원
	포럼 좌장 사례비	300,000원×1명	300,000원		300,000원
	사회자 사례비	200,000원×1명	200,000원		200,000원
	토론회 자료집 발간	자료집 발간(300부)	500,000원		500,000원
	소 계		4,500,000		4,500,000원
	플랭카드 제작	플랭카드 70,000원×3매	210,000원		210,000원
	웹자보 제작	200,000원×1회	200,000원		200,000원
	배너기 제작(물통포함)	50,000원×3개	150,000원		150,000원
	소 계		560,000원		560,000원
	기타운영	진행요원 80,000원×2명	160,000원		160,000원
	영상(기록)	300,000원 1식	300,000원		300,000원
	소 계		460,000원		460,000원
	합 계		5,520,000원		5,520,000원

【첨부】

경인일-오피니언 입력 2022-07-13 19:51 신동욱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기고] 부평의 '일본육군조병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달 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사에서 '균형·창조·소통'을 핵심가치로 하여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인류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계층·세대 간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는 한편, 인천의 역사성을 살려 문화관광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래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에는 81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세계 유일의 '일본육군조병창'이 있다. 이곳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수탈의 근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장소다. 다시 말해 당시를 이야기하는 현장과 문서자료, 물건, 체험자 네 가지가 모두 남아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일본육군조병창~함봉산 지하호(지하공장)~미쓰비시 줄사택으로 연결되는 역사군락지이다. 특히 함봉산 지하호는 1945년 3월,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일제가 동경제1육군조병창의 일부를 옮겨오기 위해 굴착한 지하공장이었다. 어린 조선의 학생들이 노역에 동원됐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흔적을 지우며 전쟁의 피해국임을 강조하는 일에 혈안이다. 그리하여 전쟁 관련 시설 중 일본 내 6개 조병창은 대부분 철거하고, 대신 원자폭탄의 상징인 히로시마 원폭 돔이나 연합군에 공습당한 시설들이 전쟁유적으로 지기했다. 전쟁 기해될 전쟁피해로 둔갑시키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이 부평의 '일본육군조병창'인 것이다.

일제 침략의 상징 매우 희귀한 장소
일본 역사왜곡 바로잡을 수 있는 곳
세계인들에 아태전쟁 참상 알려야

과거의 불편한 역사, 어두운 역사라 하더라도 엄연한 우리의 역사다. 사실 그대로 보존해 그로부터 올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곳의 문화재적 가치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에서 실사 후 보전가치가 있음을 인정, 보전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유일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세계인류가 보편적 가치로서 공유한다면, 이곳은 인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류에

게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역사문화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평양에 있는 병기공장도 세계문화유산으로 함께 추진한다면 평화의 마중물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평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공식 지정됐고 부평의 캠프마켓(일부 일본육군조병창)은 용도가 문화공원으로 돼 있다. 문화공원을 품격 있고 멋있는 공원, 공연장을 만들고 기존 미군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연구하고 교류,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겠다.

81년만에 우리 품에 안긴 역사공간 '명소화' 문화·관광 융성도시 도약

또한 이곳을 세계적 브랜드의 조병창 시설을 근간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역사문화 관광코스로 하고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대의 지하상가와 부평전통시장을 연결해 쇼핑코스로 만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주민 중에는 조병창이 갖는 역사성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캠프마켓의 환경 오염 정도를 과장하며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대 문화재로서의 보존도 중요하고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경중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다행히 현대기술로는 귀중한 문화자산도 보전하고 환경도 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비록 정화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후대와 세계인류에게 역사교육현장을 남겨주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과 인내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81년 만에 우리 품에 돌아오는 역사공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부평은 한때 한반도 조선 병참 기지화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그 역사성을 되찾아 부평만이 갖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활용해 인천의 명소로 창조해 나간다면 인천은 지역 불균형 해소는 물론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관광산업이 융합하여 융성하는 미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정복 시장의 취임사를 믿는다.

2021BCAF조직위원회 조직

직명	이름	전문분야	전화번호	비고
고문	지운하	전통		
	나채훈	언론인		
	황동렬	전)중앙대 교수		
	신흥순	남동구 문화원장		
자문위원	김재화	서예		
	곽준석	사진		
	권동철	체육		
	안정자	서예		
	전운영	미술		
	장용	방송인		
2021BCAF조직위원회사무국				
조직위원장				
부위원장(남)	권순식	사진	사진작가	
부위원장(여)	김경숙	음악	메가(주)부평지점장	
총감독	신종택	예술가	부평캠프마켓예술제	
후원회장				
후원부회장(남)	손도문	건축가		
후원부회장(여)	김경희	교사		
사무총장	조성돈	국악인		
사무국장	김인철	미술	숙명여대교수	
간사	박영희	미술		
공연예술감독	이민우	음악감독		
시각예술감독	이탈	시각예술가		
홍보위원장	최명우	씨프로덕션		
홍보부위원장	신미영	디자인넷		
자원봉사단장	박일용	부남부봉사단		
부단장	윤경녀	부남부봉사단		
부단장	김순순	부남부봉사단		

전문위원

	대표	예술단체	전화번호	
	박병상	생태		
	조강희	환경		
	이회환	평화		
	김현석	사학		
	김창수	문학		
	이경모	미술평론		
	최경숙	공연예술		
	장구보	공연예술		
	이찬영	전통		
	박재일	고미술컬렉터		
	이광석	연극		
	조용균	변호사		
	김건일	음악		

예술단체 대표 당연직

	대표	예술단체	전화번호	
	신체란	동풍물단대표		
	신영자	부평예술인협회장		
	서광일	잔치마당대표		
	안정자	부평향토원로작가회장		
	소병순	문화비빔		
	성창훈	풍물패 더늠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137-82-89429

단 체 명 : 부평캠프마켓예술제조조직위원회

대 표 자 성 명 : 신종택

생 년 월 일 : 1958 년 05 월 19 일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86-6, 101호(부평동)

발 급 사 유 : 신규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년 08 월 10 일

북 인 천 세 무 서 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 명 칭	부평캠프마켓예술제조직 위원회	②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37-82-89429
③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86-6, 101호(부평동)		
의 무 이 행 자	④ 성명	신종택	
	⑤ 주 민 등 록 번 호	580519-*****	
	⑥ 주소 또는 거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22번길 27, 101동 1202호(산곡동, 경남아파트)	
⑦ 지정 년월일	2021 년 08 월 03 일		
⑧ 지 정 사 유	신규		

국세기본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1 년 08 월 10 일

북인천세무서장

